본지 윤호섭 기자 불교기자상 수상

종교편향 행사명칭 교체 이끌어



올해 한국불교기자상 취재보도 부문에 본지 윤호섭 기자의 '패럴림픽 페스티벌 종교편향 명칭 비판 보도'가 선정됐다.〈사진〉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현태, 이하 불기협)는 11월 19일 한국불교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호성 · 동국대 교수) 회의를 열고 2018년 한국불교기자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권오영 법보신문 기자의 기획연재 '조계종 총무원장 열전'을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에, 이경민 불교신문 기자의 '해보니… 체험기'를 기획 · 해설 부문 수상작으로 각각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패럴림픽 페스티벌의 종교편향 명칭 비판 보도'는 2018년 3월 패럴림픽 기간에 강원도와 한국관광공사가 준비한 축제 명칭이 '3월의 크리스마스'인 것에 대해 공공기관의 종교중립을 지적했다"면서 "행사명칭을 '스노우 페스티벌'로 교체하는 성과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김지원 기자

"서예와 수행은 하나"

최연소 청남서예대상 김상지 서예가



김상지(29 · 사진) 청년서예가가 제29회 청남서예대상 전국휘호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11월 18일 부산시민공원 전시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상지 씨는 "서예를 수행의 방편으로 정진하겠다"며 "부모님과 은사스님인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최연소 대상 수상자인 김상지 작가는 '독서파만권하필여유신(讀書破萬卷 下筆如有神)'이라는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로 작품을 출품했다.

청남서예대상 전국휘호대회는 청남 오재봉 선생을 기리고 선(禪)서예술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양인숙 시인, 불교아동문학상 수상

시집 '그 너머가 궁금해'로… 24일 시상



제35회 불교아동문학상 수상자로 양인숙 시인〈사진〉이 선정됐다.

한국불교아동문학회(회장 이창규)는 "제35회 한국불교 아동문학상 수상작으로 양인숙 시인의 동시집 〈그 너머가 궁금해〉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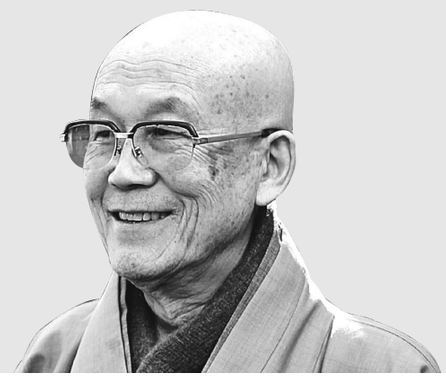
곽영석 · 김종상 · 신현득 심사위원은 "수상작은 비교적 단시가 많으면서도 구호적이며 비문학적인 요소를 충분히 소화했다"며 "문답식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 '마주보며' 등 보시와 보살심을 형상화한 불교 시에 높은 점수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시상식은 11월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다. 김지원 기자

"정통 조사선 체험 선풍진작 주춧돌"

Interview

조사선 수련회 여는 원명선원장 대효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2월 7~9, 21~26일 걸쳐

청소년 · 일반인 대상으로

간화선의 화두참구 도와

"대승불교가 훼손되고 붕괴되며 일어난 조사선을 대중에 전하지 못하면 불교는 대중과 격리돼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조사선을 비롯한 선불교는 기존 인식을 뒤집는 일대 혁명적 사상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방식에도 맞습니다. 불교를 위한 불교, 불교만을 위한 불교에서 벗어나 새롭게 대중에게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조사선으로부터 선수행 진작을 도모하는 수련회가 열린다. 제주 원명선원(선원장 대효)은 12월 7~9일, 12월 21~26일 조사선 수련회를 개최한다.

제주 원명선원 선원장 대효 스님은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삼매체험을 통해 빗나간 습관과 태도를 바람직한 자리로 돌려놓는, 깨달음을 구하지 않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깨달음이 다가오는 무공용(無功用-한다는 의식 없이 함)의 공부법 수련회를 지속적으로 연다"고 밝혔다.

원명선원 수련의 특징은 일상생활에서 간화선 화두참구를 통해 나의 주인은 '나'임을 자각케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명선원에서는 참선과 금강단식을 함께 병행한다. 참선을 통한 단식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해 수련의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대효 스님은 "참선 · 단식 수련을 통해 심신의 홀가분한 경쾌함을 통감할 수 있고 심신개벽을 통해 자신감, 신념증대, 창의성, 능력개발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식에 대해서도 스님은 "원명선원에서 하는 금강단식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과 달리 단식 전 감식과 단식 후 보식이 전혀 필요 없으며 요요현상도 없다"고 밝혔다.

대효 스님은 그동안 대중 선수행 진작을 위해 50여 년간 제방에서의 참선 수행과 지도를 해오고 있다.

원명선원에서 고통 끝 행복시작을 의미하는 '고(苦)땡 캠프'를 시작으로 어린이, 청소년, 부자, 부부, 가족집단 수련회와 제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선 실참과 불교 체험을 제공하는 '인문학의 숲' 강좌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화두참구의 간화선보다 조사와의 문답을 통해 정진하는 조사선 보급에 힘쓰고 있다. 스님은 "조사선 정신은 힘을 쓰는 과정을 통해 목적을 이루거나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며 "'말 듣다 깨닫는 법'이 조사선의 핵심사상이다. 서로 주고받는 이 순간 깨어난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 순간순간 '모름'이 촉발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한국불교계가 이러한 선지식으로부터의 가르침과 지도의 방식을 놓치고 있다. 간화선의 위기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조사선은 전통이나 가치체계 및 사상적 권위 등 일체를 부정하고 시작한다"며 "기도 중심의 불교사상을 부정한 새로운 불교다. 이 시대 조사선을 통해 대중교화와 불교 전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종소리, 호국 등불로 빛나길"

고창 선운사-육군 35사단 호국 충경사 범종각 낙성



호국 충경사 범종각 낙성식에서 내빈들이 기념 테이프를 자르는 모습.

전북도민들의 안녕과 향토방위를 책임지는 육군 35향토사단 호국 충경사에 범종각이 새롭게 들어섰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와 육군 35사단(사단장 석종건)은 11월 20일 부대 내 호국 충경사에서 '충경부대 안전과 발전, 평화기원을 위한 범종각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홍련암 재정 스님,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선운사합창단 불자들과 석종건 사단장 등 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낙성법회는 경과보고와 리본커팅, 타종, 환영사, 법문, 음성공양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범종각은 청정하고 맑은 소리, 하늘의 소리, 진리의 소리가 퍼져나가는 곳"이라며 "범종소리가 35사단 장병과 가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모두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주고, 지역주민들에게도 화합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종건 사단장은 환영사에서 "범종각 낙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충경부대에 울려 퍼진 범종소리가 장병들 가슴마다 호국의 등불로 빛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석종건 사단장은 경우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경우 스님은 소형 범종을 석 사단장에게 선물했다.

이날 낙성한 범종은 500관 규모로 옛 9군단에서 1988년 제조됐으나 부대 해체로 인해 106연대에 있던 종으로, 석종건 사단장이 선운사 경우 스님에게 이전 불사를 요청해 35사단 호국 충경사에 종각을 새로 조성하고 낙성법회를 봉행하게 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 성찬회, 동국대에 장학금

20명에 각 100만원… 총 2천만원



(재)불교문화진흥 조계종 성찬회(이사장 정념)는 11월 15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성찬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수여식은 동국대 서울캠퍼스 15명, 경주캠퍼스 5명 등 총 20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성찬회는 조계종 초대종정 한암 대종사의 도심 포교 발원을 받들고 탄허 스님과 만화 스님의 유지에 따라 설립됐다. 신성민 기자

"국내외 소외 이웃 돕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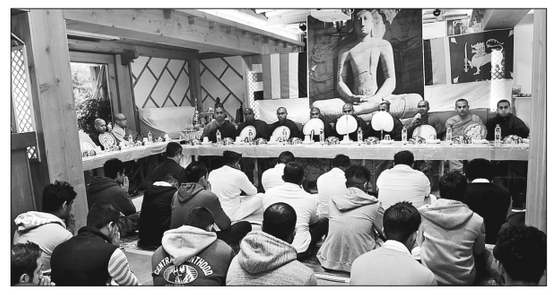
조계종 19교구, 동행에 5500만원



조계종 제19교구장 덕문 스님(구례 화엄사 주지)은 1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자비나눔기금 5,500만원을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이하 동행)에 전달했다. 기금은 교구 본 · 말사가 함께 모연한 것으로 인도네시아 재해복구 500만원, 여수시 이웃돕기 1000만원, 언양자재병원과 화엄사 역경사업에 각각 2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김지원 기자

"스리랑카 스님 위한 공양"

광주 길상사, 고월당서 카티나 법회



광주 길상사(주지 도제)는 11월 18일 스리랑카 불자들 200여 명 참여한 가운데 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카티나 법회를 고월당에서 열었다. 카티나 법회는 스리랑카의 전통법회로 매년 음력 9월 28일 하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가사와 음식을 올리는 법회로, 스리랑카에서는 1개월간 전역에서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강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